

龍仁文化

1987. 3. 31

第 10 號



龍仁文化院

龍仁文化

1987. 3. 31

第 10 號



龍仁文化院

군 민 헌 장

우리 용인군은 산자수명하고 풍요한 고장으로 힘찬 전진의 기상과 참신한 기풍을 조성하여 비약적으로 무궁하게 발전하는 군입니다.

유서깊고 그윽한 고적과 동방의 정기어린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충혈사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슬기로운 예지와 고매한 덕을 쌓아 튼튼한 몸으로 우리 고장을 계발하고 가꾸어 나감이 우리들 군민의 자랑입니다.

용인의 수려한 자연속에 평화롭고 오붓하게 잘 사는 복지 사회를 우리들의 손으로 이룩해 가기 위하여 마련한 이 헌장을 다 함께 한결같이 힘써 지켜 나갑시다.

1. 서로 존경하고 협동하는 군민이 됩시다.
2. 화목한 가정, 정다운 마을, 명랑한 환경을 이룩해 갑시다.
3. 온 군민이 한 가족처럼 온 군민이 한 집안처럼 믿음있게 살아 갑시다.
4. 자기들의 소질과 능률을 계발하는 한편 알차게, 보람찬 내일을 위해 전진합시다.

차 레

머 리 말	문화원장 김정근	5
郷土文化叢書發刊事業	문화원 사무국장 이응준	7
용구문단 <수필>	후회(後悔)	박상돈
	약속을 위하여	노영마
	새벽마다	林峻奎
	봄의 문턱에서	이길호
	木 蓮	박상돈
	소한(小寒)外 1 편	유혜경
盆裁와 우리生活	申永熙	21
꽃꽂이	춘 삼 월	오민근
마을誌 (1)	서리(西里)	李仁寧
特 輯	“龍仁의 民謠”(俗謠를 中心으로)	河周成
옛문헌속의 용인 (8)	용인을 지나며	홍순석
용인금속유물자료 (5)	심곡서원 강당기	홍순석
사발통문		52
87년도 용인문화원 사업계획		55
表紙說明		56
편집후기		57

10

머릿말

용인문화원장 김정근

새봄을 맞이하면서 새로히 움돋는 새싹들을 바라보는 즐거운 마음 만큼이나 용구문화 제 10호를 출간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사회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평이나 불만 불유쾌한 일이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 갈수만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라 하지만 인간만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니 그저 생존권이나 생활권이 침해 당하지 않으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참아가며 양보하며 희생도 조금 해가면서 살아감이 사람 삶의 도리가 아닐까

사회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불만의 요소가 언제나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불만의 요소가 불평으로 토출되어 한쪽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여 기계화된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 많은 분야에서 노동의 수요가 증가되게 마련이다. 이때에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이동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하나의 집단이 되어 한자리에서 같은 목적으로 일하게 된다. 이때에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서열이고 감독자와 근로자 즉 상과 하의 구분이 불가피하게 된다.

공업발달의 초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업체나 공장에서 직원이나 공원을 채용할때 평가의 기준은 개개인의 능력 및 경험이 아니라 혈연, 지연 학연등이 많이 작용해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능률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평가되며 기업체가 성장하는데 저해요인의 하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급격이 공업이 발달되다보니 공장에서는 인원부족 현상이 나타나서 많은 농촌청년들이 도시공장으로 이동하여서 지금은 농촌에서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며 노약자들이 농촌을 지키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로 몰려든 노동력은 일자리의 증가와 보다 좋은 자리를 찾아서 공장과 공장간의 이동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직장에서 일하게 될때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소득이 이루어져야하며 자기의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무능하면서 노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보다 소득이 많고 승진도 빠르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불만이 있을터이고 그것이

불평으로 도출된다면 맑고 밝은 직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 부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주어야 한다. 물론 자기 노력없이 다른 사람이 값없이 갖어다 주는 기회가 되어서는 아니되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며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무턱대고 현재 지니고 있는 소득분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소득분배가 아니라 앞서 말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노력한 만큼의 소득이 보장되며 하고싶은 일을하며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소득분배의 기본이고 즐겁고 합리적인 직장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郷土文化叢書發刊事業

龍仁文化院事務局長 李 應 峻

其間 龍仁文化院에서 郷土文化研究委員 및 郷土史學者에 依하여 내고장의 것
을 찾고 알고 가꾸어보자는 理念으로 先代에서 남기신 자취와 郷土文化資料
를 發掘, 脈絡을 크게 새기고자 無限한 努力과 심혈을 기울여 「郷土文化資料」
를 1輯부터 7輯까지, 季刊 龍仁文化를 1號부터 10號까지 發刊하기에 이르
렀다.

이같은 일들은 編著者 自身들의 명예나 營利를 일삼아 하였던 것은 아니다.
오직 점차 사라져가는 내고장 固有文化를 찾아 郷土文化를 후세들에게 물려
주자는 愛郷心이었을 것이다. 언젠가는 누가하여도 하여야 할 일들을 郷土文
化委員들은 몸소 實踐하였고 奉仕하였다.

나라사랑과 郷土사랑은 너와 내가 따로 없듯이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對
한 愛着心を 갖게 해주고 郷土文化暢達을 爲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覺悟였
을 것이다. 特히 本文化院의 金正根院長은 「내고장 地方文化를 모르고 愛郷
心이 있을 수 없고, 文化院의 活性化를 期待할 수 없다」는 心念으로 郷土誌
發刊事業을 重點目標로 삼아 推進한 結果라고도 生覺할 수 있을 것이다. 오
로지 本文化院은 地方文化의 中樞로서 郡民과 더불어 커가는 文化의 殿堂으
로 育成하겠다는 하나의 信念이라 할 것이다. 뿌리없는 나무없고 根源없는
江물없다는 理致이고 보면 살아오고 살아가는 자취를 엮은 이 貴重한 郷土誌
가 所重히 간직되어 後代의 내고장 龍仁의 歷史에 뿌리가 되기 바람여 其間
에 發刊된 龍仁郷土文化資料叢書는 다음과 같다.

- 第1輯 龍仁郡邑誌 部數100部
發行日 1983. 3. 1. 編著 洪順錫
- 第2輯 내고장民謠 500部
發行日 1983. 12. 20. 編著 洪順錫
李仁寧
- 第3輯 내고장龍仁 500部
發行日 1984. 7. 15. 編著 李仁寧

- 第4輯 내고장의 일(人物編) 500部
發行日 1984. 11. 30. 編著 洪順錫
- 第5輯 내고장옛이야기 1000部
發行日 1985. 12. 20. 編著 洪順錫
李仁寧
- 第6輯 내고장의 일(遺物遺蹟)1000部
發行日 1986. 3. 31. 編著 李仁寧

盆栽와 우리生活

- 龍仁盆栽研究會結成에 즈음하여 -

龍仁盆栽研究會長 申永熙

새 봄을 맞는 모든분에게 새로운 所望과 祝福이 가득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우리나라의 盆栽歷史는 B.C. 6世紀경의 百濟時代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일본 및 동남아에 까지 傳授하여 주었던 것으로 문헌을 통하여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분재문화예술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간 地政學的인 숙명으로 대륙(중국)과 해양(일본)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한 난국 극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분재문화가 發展할 수 없었으나 뜻있는 先人들에 의하여 실로 실오라기 같은 명맥을 이어오다 우리시대에 와서 비로소 분재문화예술의 中興期를 맞고 있습니다. 그 한 발자취로써 1981년 社團法人 韓國盆栽協會가 결성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우리고장 용인에도 뜻있는 盆栽同好인들이 힘을 모아 87년 3월 용인분재연구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국가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어 급속도로 팽배해가는 도시화의 부산물로 정서의 황폐를 메꾸고자 하는 많은 분을 위한 작은 몸짓으로 自然에 대한 향수, 아름다움에 대한 羨望을 조금이라도 채워드리고자 3월 28일 용인문화원 강당에서 분재전시회와 무료강습회(실기 및 이론)를 개최하여 우리고장 분재 애호인과 뜻있는 분을 모시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고장 분재애호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체적질을 바라며 함께 참여하셔서 연구하고 발전시켜 우리고장의 분재문화예술이 한국의 분재문화예술을 빛내는 일익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고장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용구문화”의 지면을 활애하여 주신 편집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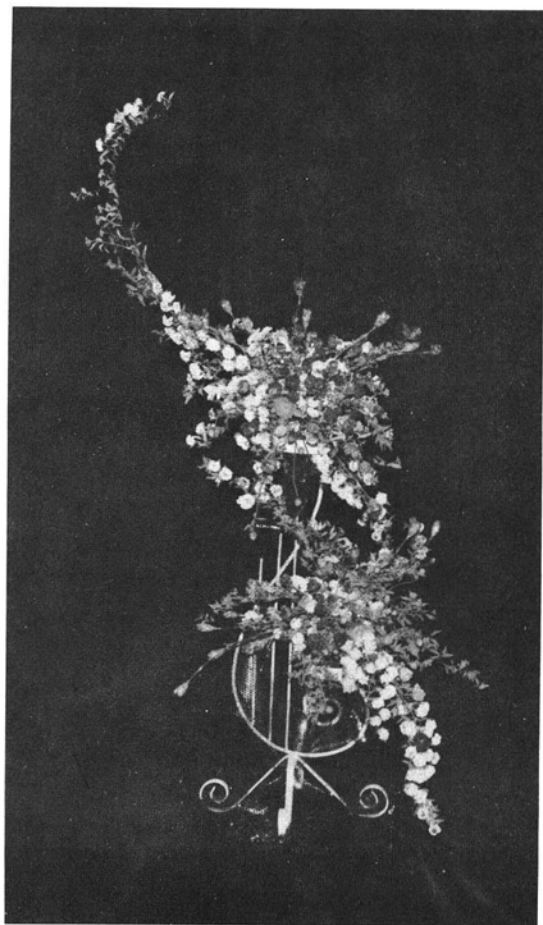


꽃꽂이

春三月

영지회 꽃꽂이 용인지부
사범 오민근

꽃샘 바람 속
화사한 햇볕의 아래이다가
현관문 그 네모상자속에서
눈이 부시도록 가슴뛰는
나와 당신의 어린날의 봄을
만납니다.



(素材)

조팝나무

카네이션(시미리)

뽕뽕

서리(西里)

李仁寧

본래 용인현 상동촌면(上東村面)에 속했었다. 그 後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에 상반(上磬), 중반(中磬), 상덕(上德), 중덕(中德), 하덕(下德)과 불당곡(佛堂谷)을 합치고 상동면(上東面) 치소(治所)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서리(西里)라 稱하였다.

동으로는 천리(泉里)와 접하고, 서로는 화성군 동탄면과 인접하며, 남으로는 함봉산(咸峰山)을 경계로 하여 남사면 완장리(完庄里)에 접하고 북으로는 함박산(函朴山)을 경계로 하여 용인읍 남리(南里)와 인접한다.

마을 입구에서 갈라지는 길이있다.

우측길을 따라가면 하덕, 중덕, 상덕곡에 이르며, 여기서 두갈래의 길이 나타나는데 우측의 길을 따라가면 용인과 경계를 이루는 학교개(鶴峴)에 이르고 또 좌측길을 따라가면 기흥면 지곡리의 사기막에 이른다.

다시 서리 입구로부터의 좌측길을 따라가면 하반부락에 이르러서 남쪽으로 꺾어지며, 남사면 완장리로 넘어가는데 이곳 중간, 즉 하반과 완장리 사이의 고개를 「가로(쟁이) 고개」라고 부른다.

상반곡과 조이골(종이골)의 협곡에서 시작되는 세천과 부아산(負兒山)의 셋터(새터)골자기와 상덕곡의 협곡, 그리고 중덕의 사기막골에서 흐르는 세천이 마을 입구에서 합쳐 용천천(龍泉川)으로 들어간다.

길은 이곳에서 갈라져서 방향을 달리하지만 물은 사방에서 흘러 이곳에서 만나는 병목지가 되고 있다.

어디가나 겹겹이 둘러쌓인 산은 분지를 형성하고 땅은 토박하다.

집요하게 삶을 이어온 이곳 주민들은 길을 뚫고 물을 막아 옥토를 일구었다. 이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땔나무를 해다 팔던것이 유일한 경제 수단이었으며 용인 시장의 주종을 이루다시피 했던 고구마썩 온상의 재배지로 유명했던 곳이었지만 그동안 탈속을 거듭하여 벽촌이라던 오명을 떨쳐 버렸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근면, 성실함과 피나는 努力의 축적이 이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상덕(上德)】

행정리로써 서 2리에 해당된다.

용인 역북리와 서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학고개>, 그 아래에 하(河)씨가 제일 먼저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하씨는 사람됨이 중후하고 덕(德)이 컸음으로 그가 살던 집을 지칭 할때는 “하씨택 고개”라고 하던것이 <하씨고개>가 되었고 이것이 다시 변형되어 <학고개>가 되었다.

하씨의 덕이 온 마을에 미치자 주민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으며 인근까지 그 소문이 퍼져 “덕망있는 분”이 사는 곳으로 지칭되다가 그 일대를 덕곡(德谷)으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이 동, 서로 길게 흩어졌는데 가장 상부(上部)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덕으로 불리워졌다.

○ 현곡(玄谷)

마을 서쪽을 가르키는데 이를 “가무랑골”이라고 한다.

숲과 나무가 무성했음으로, 대낮에도 컴컴하다 하여 가무랑골로 불리웠는데 이를 한자 표기로서 현곡(玄谷)이라 하였다.

가무랑골 윗쪽을 셋텨말(새터마을)로 부르는데 기흥면의 지곡리 사기막과 경계가 된다.

또 북쪽의 학고개 아래에 서울공원묘지가 있다.

이 부근을 움말(윗말)로 부른다.

서울 공원의 맞은편 산에 현재 심사정¹⁾의 묘가 있다.

또 구성말(구석말) 절골, 안터등의 속명이 있다.

【중덕(中德)】

행정리로서 서 1리이다.

상덕곡과 하덕곡의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중덕(中德)으로 불리운다.

마을 입구를 자트락(자투리)밭, 또는 진청(진창)리로 부르며, 서낭당이²⁾(성황당), 도장굴등의 속지명이 있고 그 북쪽으로 이어가면 함박산에 이른다. 서쪽으로는 삼막골, 동직이터, 살포쟁이, 안산넘어 등의 속명이 있다.

또 남쪽으로 하반부락과의 사이에 있는 고개를 <중방고개>로 부르고 있으나 지금은 숲이 우거져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

마을 앞밭을 새비뜰, 붙뜰로 부르며 그 윗쪽을 건논자리, 고양논이라고 부른다.

마을 중간에서 북쪽으로 가면 협곡에 사기막골, 넘말, 동녀넘어, 찬우물뿌리 등의 속명이 있는데, 사기막골에는 도자기퇴적층이 있고, 이조 초기의 분청사기편과 백자편, 갑발등을 찾아볼 수 있다.

본래 천주학을 하던 신도들이 은신하여 그릇을 굽던 곳으로 알려졌으나 1982년 이화대학교 박물관 학술조사팀에 의하여 고려백자를 굽던 곳임이 확인 되었다.

1983년 7월 문화재 전문위원 맹인재(孟仁在)씨와 필자들이 현지 답사를 했을때에는 그 부근은 이미 도자로 파헤쳐져서 목장이 들어섰다.

사기막 입구 좌측 산등성이에 방형의 쌍분(雙墳)이 있다.

문관석 2기가 있고 묘앞 좌측에 규두형(圭頭形)의 묘비석이 있으나 마멸이 심하여 비문을 판독할 수 없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묘소를 권두령(權頭領)묘라고 하는데 고려때의 고분인 것으로 보인다.

또 중덕(中德)부락의 뒷산에 박환(朴煥)³⁾과 그의 아들 박세성(朴世成)⁴⁾의 묘가 있다.

권두령묘 근처에 우생원묘(牛生員墓)⁵⁾가 있었다고 전한다.

경주이씨가 10대, 평양조씨가 15대, 반남박씨가 16대를 살았다.

하덕(下德)은 마을의 초입 동쪽이다.

서 1리에 속한다.

【상반(上磐)】

행정리로써 서 4리이다.

일명 사리치(砂利峙)라고도 한다. 사리치는 본래 화성군과의 사이에 있는 고개의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마을 중간에 천주교 성당이 있고, 바로 아랫쪽에 불당(佛堂)이 하나 있다.

마을 중간 북쪽으로 도요지가 있는데 마을에서는 이곳을 사기둥치라고 부른다.

은(殷)씨가 최초로 살았다. 뒷산에 은신윤(殷莘尹)의 묘가 있다.

전주이씨가 11대째 살고 있으며 그다음이 박씨이다.

마을 앞산에 이지렴(李之廉)⁶⁾의 묘가 있다.

〈마을誌(1)〉

마을입구 동쪽을 지내골이라 한다.

서쪽으로 바른골, 사장터, 다래골 등의 속명이 있고 사리치 아래쪽에 큰골, 절골, 벼락바윗골 등이 있다.

정남(正南)으로는 고남이골이 있으며 인가가 있었으나 화재로 인가가 불탄 후 지금은 폐하였다.

북서쪽으로 뒷간골, 긴줄이, 벌논, 귀밑논, 보쟁기 새말앞뜰, 속자리, 뒷골, 하계골등이 있으며, 상덕으로 통하는 오솔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하였다.

【하반(下磐)】

행정리로서 서 2리이다.

서리는 원래 돌자갈 밭이 많았기 때문에 석밭탕이라고 한것이 〈석반〉이 되었고 마을이 석반 아래에 있다고 하여 하반으로 불리웠다.

마을 입구에 갈래길이 있는데 이곳을 송장벌이라고 한다.

또 마을 초입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산이 쟁기의 모습과 같다하여 모습봉이라고 하며, 마을 정남의 앞산을 흥산밀 개울에 병풍바윗골이 있고, 그 우측으로 서돌단, 식량골, 호장골. 큰고개(동탄면 실리로 넘어가는 고개)와 작은고개가 있다.

또 작은 고개 밑으로 신부터(神父塚)가 있는데 천주교회 신부가 잡혀죽었다.

그 좌측으로 장고개(종이꼴로 넘어가는 고개), 큰 두멍골, 작은 두멍골, 땀지골등의 지명이 있다.

또 남쪽에 완장리로 넘어가는 가로고개가 있고, 그 중간 골짜기에 조이(紙)골이 있다.

마을 북쪽산을 뒷동산으로 부른다. 여기에 중상골(중(僧)산골 중이 살았던 골)이 있다.

○ 불당골(佛堂谷)

마을 동남쪽에 절터가 있다. 신라 효공왕때에 건립된 사찰지라고 전한다(연혁집)

마을 전체가 연안이씨 사패지(賜牌地)이다.

입구에 「延安李氏 先塋下」라는 표석(表石)⁷⁾이 있다.

또 표석 앞쪽으로 금표(禁表)⁸⁾가 있다.

표석에 나타난 기록에 용인(현) 구수동(九水洞)이라는 명문(銘文)이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의 불당골은 「九水洞」의 별칭임을 알 수 있다.

마을 입구 가장자리에 이원발(李元發)⁹⁾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또 마을 뒷산에는 이원발의 묘를 비롯 이귀령(李貴齡)¹⁰⁾, 이귀산(李貴山)의 묘가 있다.

이 마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대략 조선 초기, 세종 중기때인 1438년 경인 것으로 보인다.

이 해가 정통(正統) 무오년인데 연안이씨의 경제석을 세운 해의 간지와 같다.

마을 동쪽이 절터풀이고, 서쪽에 정골, 좁은골, 넓은골, 지내골등의 속명이 있고 남쪽으로는 남배기, 덕성, 안산골등의 속지명이 있으며 북쪽으로는 뒷골로 통하는 능곡(陵谷)이 있다.

- 1) 현제(玄齋) 심사정(沈師正) : 조선 중기의 화원(畫員). 숙종 33년인 1707에 출생. 영조 45년(1769)에 별제 자(字)는 이숙(頤叔), 호(號)는 현제이며,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단원 김홍도와 더불어 이조 중기 화단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어려서는 겸재정선(鄭善)에게서 배웠고, 옛사람들의 화결(畫訣)을 터득, 대륙풍의 웅건한 화풍을 이루어 중국까지 알려졌던 인물이다.

현제화첩(玄齋畫帖)에 의하면 화(畫)에 있어서 무소불능(無所不能)이라 하였다.

그중 화분초충(花奔草虫)을 잘 하였고, 다음은 영모(翎毛)이며 그다음이 산수(山水)라고 했다.

일명 현제거사(玄齋居士)라고도 불리웠는데 서화징(書畫徵)에 “소시(小時)로 부터 노년기까지 50년간 우환실락(憂患失樂)일지라도 조필(操筆)치 않은 날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궁천(窮賤)의 고(苦)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생활의 모든 것을 그림에 바친 인물이라고 하겠다.

- 2) 서낭당이 : 성황당(城隍堂), 또는 성황단(壇)의 변형된 사투리, 즉 토지의 부락(富樂)을 수호하는 神(대개 길가의 큰나무, 때로는 사당도 있었다)이 거처하는 곳.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들에다 침을 배알아 던지거나 소지품, 특히 엽전을 하나씩 두고 지나가기도 했다.

토속신앙으로서 용인 지방에서는 동제(洞祭), 당제(堂祭)등을 지냈고 햇곡식으로 시루떡(고사떡)을 빚어 성황신에게 제사 지내던 습속이 있었다.

- 3) 박환(朴煥) : 조선 인종때의 충신 선조 7년에 출생하여 현종 12년(1671)에 별세. 字는汝述, 號는守愚, 본관은 반남이다.

참봉 동민(東民)의 아들로서 조실부모하에 고모와 숙부의 손에서 자랐다.

사계(沙溪) 金長生의 문하생이었다.

광해군때 나라의 기강이 어지러워지자 물러났다가 인조반정후 장례원 사평(司評)을 거쳐 강원도 인제 현감을 지냈다.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부원수로서 출진하여 이

<마을誌(1)>

를 를 막아내고 돌아와 軍資監主簿가 되었다가 지평(현: 여주)현감을 지냈다.

또 인조 14년의 병자호란 때에는 현내의 병사를 거느리고 1 척으로 남한산성으로 출병했다.

그후 양친, 단양등지의 현감을 지내면서 선치했다(연려실기술)

- 4) 박세성(朴世成) : 조선 현종때의 문관, 광해군 13년(1621)에 출생, 현종 12(1671)에 하세했다.

字는 萬基, 본관은 반남, 同知中樞府事 朴煥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침착하고 영리하였다. 또 재주 역시 뛰어나 글을 잘 하였다. 현종 2년(1651)알성문과에 급제 承文院副正字를 지낸후 벼슬을 두루 거치다가 부모를 봉양키 위해 삭영군수를 자치하고 나아가서 선치하였다.

벼슬이 호조판서에 이르렀다. 자상한 반면 결단력과 의리도 있었다. 평생 청렴했고 가난으로 만족했다.

- 5) 牛生員墓 : 안성사는 흥대감댁 청상과부와 용인사는 흠아비와의 인연을 맺게 해주었다는 소의 이야기로서 이들 부부는 소가 죽은후 무덤을 만들어주고 우생원지묘라고 하는 묘비를 세워 주었다는 전설의 무덤

- 6) 이지렴(李之廉) : 조선의 학자, 인조 6년(1628)에 출생했고 숙종 17년(1691)에 별세했다.

字는 양이(養而), 號는 치암(恥庵). 본관은 함풍이며 부위(副尉) 초옥(楚玉)의 아들이다.

김집(金集)의 문인이고, 학문으로 이름을 떨쳐, 송준길(宋浚吉) 민진원(閔鎭遠) 등의 추천으로 동몽교관에 임명되었으나 사퇴, 뒤에 부술을 지내고, 이어 광릉참봉이 되었으나 곧 사직했다.

1682년(숙종 8) 靑山현감으로 부임, 기민(飢民)의 구제에 힘쓰고 1687년 흡곡(歙谷) 현감이 되어 교학과 풍속순화에 努力했다. 시와 글씨에도 뛰어났다.

- 7) 表石 : 꽃돌, 문화재, 기념물등 사물이나, 위치 경계를 표시한 돌. 묘소앞의 묘표하마비 등이 이에 속한다.

- 8) 禁表 : 일정구역내에서의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를 제한 금지 하기 위해서 세운 표석. 조선초에는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9) 李貴齡 : 고려충숙왕 1년(1345)에 태어나고 조선조 세종21년(1439)에 별세했다. 조선초기의 공신이며 字는 修之, 시호는 강호(康胡), 본관은 연안이다.

고려때 임관되어 청주등의 管軍萬戶를 지냈으며 조선태조가 즉위하자 잠저때의 공으로 原從功臣에 책록되고 동북면 都巡門使, 兵馬都節制使 등을 거쳐 태종때의 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그후 좌의정에 올라 은퇴하였다.

❀ 내고장 民謠 ❀

“龍仁의 民謠”

俗謠를 중심으로 中心으로

河 周 成

一. 序 論

民謠란 作者와 創出年代의 未詳으로 긴 時間동안 民族의 가슴속에 뿌리내린 정취있는 노래로써 地域의 特色이 두드러진 大衆의 音樂을 말한다. 우리나라 뿐이 아니고 世界의 어느 나라이던 간에 각기 그 나라의 固有한 民謠가 있으며 이 民謠는 그 나라의 固有한 색채를 띄우고 있는 서정적인 歌曲으로 주로 庶民層에서 불리고 사랑받던 音樂을 말한다. 이 民謠는 分類하기에 따라서 그 範圍가 매우 廣大하게 나타나는데 대개는 民間의 生活와 密接한 關係를 지니며 地域의 特性과 時代의인 背景, 創出者의 技藝力(歌唱力)등 周圍環境에 큰 影響을 받으며 創出되었다. 이 民謠는 크게 分類할 때 흔히 우리가 大衆화된 民謠라 부르는 선소리(=立晶)와 庶民의 喜怒哀樂을 담은 俗謠로 나눌 수 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京畿民謠, 全羅道民謠, 慶尙道民謠等은 대개 선소리이며 그것은 民謠의 한 部分이지 그것만이 全體的인 民謠는 될 수 없다. 다만 이 民謠(선소리)는 比較的 긴 時間동안 體系的인 傳授에 의해서 보급되었으며 活字化되어 傳承되었기 때문에 歌辭의 傳授가 용이했으며 旋律(基本的인 旋律로 장식음이나 요성(떠는 소리), 흘림소리를 제외한 旋律을 말한다)의 變化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民謠(선소리)는 각기 技藝人(唱者)의 能力보다는 地域의 特色이 두드러져 그 故場의 地名이나 固有한 事物(즉 유명한 建築物이나 形狀화된 物體)을 曲名에 많이 부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代表的 民謠인 아리랑을 보아도 밀양 아리랑,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등 그 地域의 名稱을 앞에 붙이고 있으며 경북 궁타령등 그 事物의 名稱을 부친것이 있는가 하면 천안삼거리와 같이 地名과 形狀화된 事物을 함께 복합한 것도 있다. 이러한 것은 이 民謠가 地域의 特性을 내포한다는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의 分野는 庶民層의 喜怒哀樂을 지니며 時間과 정해진 辭說이나 旋律이 없이 自然的으로 傳授되는 俗謠가 있으며 이 俗謠의 種類는 매우 多様하여 농농사를 지을때 作業

〈特 輯〉

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불려지는 모심기노래, 김매기노래 등과 보리를 打作할 때 부르는 打麥謠, 喪吊性 祭儀式에서 나타나는 行興歌(喪興소리), 회방아타령(달고질노래) 집을 지을때 부르는 地硬노래 등 많은 俗謠가 있으며 또한 읍조리는 口誦형태로 나타나는 告祀唱이나 구방가사등 多樣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俗謠는 歌唱者에 의해서 그 歌辭나 旋律의 變化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俗謠도 地域的 特性이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歌唱者의 能力에 따른 特性이 먼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俗謠는 體係있게 傳承되는 선소리에 비해서 歌唱者와 함께 消滅되고, 다시 變化된 모습으로 創出되는 自然的인 變化過程을 거치며 나타나는 것이 通例이며 이러한 過程에서 辭說의 變化나 旋律의 變化가 나타난다. 이와같이 선소리와 俗謠의 差異點이나 그 變化過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1 참조)

〈表 1〉 立唱과 俗謠의 比較

分類 比較	선 소 리 (主 唱)	俗 謠
傳授方法	歌唱力이 있는 技能保有者에게서 體係的인 훈련에 의해서 傳해진다.	自然的인 傳授로 共演場(실제 行위가 이루어지는 場所)에서 듣고 漸定的인 記憶에 의해서 전해진다.
傳授場所	傳授의 여건을 갖춘 정해진 場所에서 같은 行動을 되풀이하므로 전해진다(예: 강습소).	必要時에 나타나는 行위의 演戲場所에서 自然的으로 전해진다(예: 논, 묘지, 터를 다지는 장소 등).
演戲場所	시설이 갖추어진 共演場을 中心으로 演戲가 된다.	生活하는 삶의 터전이나 人間의 죽음등에서 나타나는 必然의 場所에서 演戲된다.
辭說과 旋律의 變化	歌唱力이 있는 技能保有者에게 辭說과 旋律, 長短등을 傳授받는 것이기 때문에 變化가 거의 없다.	스스로가 듣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辭說이나 旋律도 歌唱者의 뜻에 의해서 變化가 심하게 나타난다.

二. 京畿民謠

民謠는 地域마다 總體的인 特徵이 있는데 嶺南地方의 民謠의 音律은 男性

的이고 호탕하며 湖南地方은 女性的이고 섬세한 것을 特徵으로 삼는다. 이에 비해서 京畿地方은 그 旋律의 進行이 경쾌하다는 점을 特徵으로 삼는다. 이렇듯 民謠의 音律도 傳統藝術의 어느 分野나 共通의 것으로 갖고 있는 地域의 特性을 갖고 있으며 이 地域의 特性은 地域의 條件, 地域民의 性格, 言語等에 影響을 받으며 그 周圍의 環境을 創出의 한 條件으로 삼으며 生成되었다.

위에서 說明하듯 경쾌한 京畿道의 民謠는 대개 京畿立唱이라 부르는 선소리가 中心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京畿道의 地域마다 散在해 있는 俗謠는 歌唱者마다 그 辭說이나 旋律이 각기 特色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人員이 集團으로 共演(體系的인 共演)을 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개 民謠의 長短은 세마치, 굿거리타령, 잣은타령등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京畿道의 선소리 중에서 代表的인 것을 長短別로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세마치 : 아리랑)

창 : 이 호 연
 김 혜 란
 채보 : 하 주 성

<후렴> 아 리 랑- 아 리 랑- 아 라- 리- 요
 아 리 랑- 그 개- 른- 는- 날- 어- 프- 다
 오- 나- 를- 바- 리- 프- 가- 시- 는- 날- 은
 십- 리- 도- 못- 가- 서- 앞- 병- 난- 다

- 2 : 가자가자 어서가자
 백두산 덜미에 해 넘어간다.
 3 : 수수밭 도지는 내 물어줄게
 구시월까지만 참아다오.



에헤요 - 에헤여라 자진방아로구나
 삼월이라 삼질날 제비새끼 명마구리
 바람개비가 떴다
 에라디여 -
 에헤요 에헤여라 자진방아로구나
 사월이라 초파일 관등하러
 임고대사면보살 장안사
 아가리병실 잉어등에 등대줄이 떴다.
 아하 -
 에헤요 에헤여라 자진방아로구나
 오월이라 단오일
 송백수양 버들가지 높다랗게 그네매고
 작작도화 늘어진가지
 백능버선에 두발길로
 에후리쳐 툇툇차니 낙엽이 등실떴다
 에라디여 -
 에헤요 에헤여라 자진방아로구나
 강원도라 영천읍
 물방아가 없다더니
 밭지않은 처녀가 동구방아만 쥘는다
 아하 -
 에헤요 에헤여라 자진방아로구나

三. 龍仁의 俗謠

龍仁地方의 俗謠도 畿湖地方의 어느곳이나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俗謠의 대다수가 農事를 지을때 作業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作業謠로 豊農에 대한 祈願과 죽은 故人을 보내는 死別의 애뜻한 情과 恨을 나타내는 喪吊性 俗謠, 또한 地硬단기의 作業을 높이기 위한 지경소리, 그외의 忠孝의 內容을 지니며 創出되었다. 이 俗謠의 特徵은 歌唱者마다 그 부르는 노래의 辭說이나 旋律이 차이가 나는데 그 실질적인 辭說의 중점이나 旋律의 基本音律은 同一한 것으로써 단지 專門家에 의해서 體系的으로 傳授받은 것이 아니고 必要에 의해서 이루어질때 技藝人(歌唱者)이 부르는 것을 듣고 漸定的인 記憶을 하고 있다가 스스로가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變化가 나타나는 것으로 推定된다. 특히 이 俗謠의 長短은 선소리의 장단과는 달리 삼채, 굿거리, 잣은가락, 덩더궁이 등의 農樂의 長短을 使用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地方音樂의 거개가 農樂을 中心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소리의 伴奏用 樂器도 農樂器이기 때문이다. 龍仁地方의 俗謠를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註: 이 俗謠는 여러사람이 부른것을 綜合하여 가장 基本이 되는 것을 授錄하였으며 이 俗謠의 特徵은 歌唱者마다 부르는 方法이나 辭說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正確한 音이나 辭說을 表現하는 것을 基本的인 것으로 삼았음을 일러두고자 한다.

1) 農 謠

農謠란 논농사를 지을때 作業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부르는 勞動謠로써 대개는 모를 심을때 부르는 모심기노래와 초벌매기 두벌매기 등 김을 맬때 부르는 김매기노래로 區分되나 모심기노래는 그 旋律이나 辭說에 따라서 적었네. 꽃았네(하나하나)등과 단허리, 자즌단허리 에이어라 등의 김매기노래로 구분된다. 이 농요는 대개 모를 낼때부터 애벌매기(초벌매기), 두벌매기, 세벌매기 등 많은 사람들이 共同으로 作業을 할때 불리우는 노래로서 매김소리와 받는 소리가 교차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모심기노래 : 꽃았네)

<삼채장단>



매김소리: 심었네 심-었네- 애기-도- 꽃았네

받는소리: 심었네 꽃았네- 애기-러기-꽃았네

메김소리: 이 - 러 저 - 러 심어만 - 스 - 앙 - 밭 안 - 들 - 남 - 갖 너
 발음소리: 싯 잇 도 꽃 앓 도 - 밭 기 저 기 꽃 앓 너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승달이 반달이지
 여기저기 심더라도
 삼배출자리로 심어주게
 심었네 꽃앓네 여기저기 또 하나
 앞뜰논은 찰벼심고

건너뜰논은 은방도 심고
 뒷뜰논은 공양미 심어
 이논모를 심어가꾸어
 사배출 수확을 하여보세
 창 : 양 재 옥(남 60세, 농업)
 포곡면 영문리

(모심기노래 : 하나하나)

<삼채장엄>

메김소리: 의 기 도 - 하 - 스 - 자 - 기 모 - 하 - 스 -
 발음소리: 의 기 도 - 하 - 스 - 자 - 기 모 - 하 - 스 -
 메김소리: 노 래 - 한 보 - 모 들 - 손 - 겨 - 기 - 음 - 흥 - 모 - 추 이 나 - 되 -
 발음소리: 노 래 - 한 보 - 모 들 - 손 - 겨 - 기 - 음 - 흥 - 모 - 추 이 나 - 되 -
 메김소리: 의 보 시 - 리 - 나 - 인 - 양 - 된 이 기 도 - 들 - 흥 - 소
 발음소리: 의 보 시 - 리 - 나 - 인 - 양 - 된 이 기 도 - 들 - 흥 - 소

< 特 輯 >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닷마지기 논땀이가 반달만큼 남았네
 세마지기 남았으니 담배참 하세
 이 논에 심는 모는 삼배출이요
 저 논에 심는 모는 사배출인데
 쉬지말고 얼른심어
 장고배미로 넘어가세.

창 : 전만길(남 73세, 농업) 모현면 매산리

여기도 방인데 저기도 방이다.
 이방에 들려면 모춤을 들어라
 이논배미 얼른심고 자리뜬하자
 점심참이 늦어지니 쉬지를 말고
 여기도 하나 저기 저기도 하나

창 : 이재천(남 71세 농업) 포곡면 신원리

(김매기노래 : 에이어라)

< 봄곡소리 > (매곡소리) (방노소리)

에 이 이 라 댕 품 매 야 에 이 이 라 댕 품 매 야
 이 - 짝 흥 - 춘 스님 - 들 아 에 이 이 라 댕 품 매 야
 백밭 - 오고 - 곳저름 으라 에 이 이 라 댕 품 매 야
 어 저 흥 춘 - 으날 백밭 에 이 이 라 댕 품 매 야

그아니도 가련하나
 장래에 일등미색을
 곱다고 자랑마라
 서산에 지는해와

동녘에 쏘는 달은
 그누구가 막을손가
 요순우탕 문무주공
 공맹안중 정부자두

도덕이 과천하여	한번 가면 그만인데
만고후을 일렀건만	초로같은 우리인생
한번 아차 죽어지면	무슨말을 할까보나
영결종친 그만일세	에이 어라 뒤꿈매야
만고절색 영웅들도	어기영차 뒤꿈매야

창 : 고재순(남 65세 농업) 용인읍 호리

(김매기노래 : 단허리)

〈삼채장단〉 (배김소리) (말는소리)

에이 열 - 싹 만 - 허 피야 에이 열 - 싹 만 - 허 피야
 김 매 러 - 가 - 씨 - 에이 열 - 싹 만 - 허 피야
 김 매 러 - 가 - 씨 - 에이 열 - 싹 만 - 허 피야
 우 장 들 - 두 고 - 그 - 에이 열 - 싹 만 - 허 피야

이논배미 얼른매고
 저논배미로 넘어가세
 세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았구나
 네가 무슨 반달이나
 초생달이 반달이지
 얼릴릴릴 상사니야
 이논배미 다맷으면
 샘치배미로 넘어가자
 어허얼사 단허리야

창 : 고병주(남 58세 농업) 용인읍 호리

< 特 輯 >

(김매기노래 : 자른단허리)

<작곡가>

밭소리: 오 오-로 오호오-야 오호오-야 오호오-야
 메밀소리: 드문 드문 심-어 도 잔-고-고-고 심어-라
 밭소리: 오 오-로 오호오-야 오호오-야 오호오-야

드문드문 심어도 삼배출짜리로 심어라
 한번 심으면 양석이요
 두번 심으면 삼배출이라네
 에헤-오호오야 오호야 어어허야
 여보시오 농군님네 이내말씀 들어보소
 이논배미 얼른심고 저논배미 넘어가자
 저논배미 다되었으니
 장구배미로 넘어가자
 우헤이어-어허야 오호-어허야

창 : 권영철(남 51세 농업) 포곡면 삼계리

2) 打 麥 謠

논농사의 作業謠가 매우 多樣하게 나타나는데 비해 보리농사의 作業謠는 打작을 할때 불리우는 打麥勞動謠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쟁농사는 여러번 손이 가야 하지만 보리농사는 겨울이 지난 후에 秋收때라야 나타나는데 韓國의 農事는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보리타작 노래는 畿湖地方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몇사람만이 한두구절씩 부르고 있는데 대개의 內容은 보리고개를 넘기느라 굼주렸던 배를 채우고자 하는 뜻이 담겨있다. 이 打麥謠는 매우 單調로운 旋律로 나타나며 모심기나 김매기 등의 勞動謠처럼 音律의 變化가 多樣하지 못하다.

(늦은소리)

<앞채장안> (매김소리) (발음소리)

기 허 미 야 어 허 야 기 허 미 허 미 허 야
 옥 신 옥 신 보 리 포 다 기 허 미 허 미 허 야
 힘 을 주 어 후 러 처 서 기 허 미 허 미 허 야
 사 정 없 이 후 러 보 는 서 기 허 미 허 미 허 야

늘보리나 쌀보리나
 사정없이 후려보세
 바서지게 후려보세
 이 보리를 다털어서
 나라에도 봉사하고
 아침방아로 한번 쪼고
 저녁방아로 두번쪼고
 세번네번 거듭쪼어
 맷돌에다 돌돌갈아
 보리가루 만들어서
 보리개떡 보리죽을

은식구가 다먹는다.
 여기도 후려보고
 저기도 후려보세
 이보리가 뉘보린가
 ○서방네 보리로세
 얇은마당 깊어지고
 깊은마당 알아지고
 잘도한다 잘도한다
 우리일꾼 잘도한다
 부서지게 후려보세
 힘을주어 후려보세

(잡은소리)

<잡은소리> (매김소리) (발음소리) (매김소리) (발음소리)

문 짚 러 보 서 어 허 야 문 짚 러 보 서 기 허 야
 땅 대 훑 으 기 러 야 개 곡 로 쪼 고 기 허 야



이보리가 뉘보린가
○서방네 보리로세
문질러보세 걸보리를
높은데는 팡팡치고
낮은데는 가만 가만
왕대춧심 꺼꾸로 잡고
옥신옥신 몽게 보세
쌀보린가 늘보린가
옥신옥신 후려보세

어떤사람 팔자좋아
일안하고 잘사는데
우리같은 인생들은
무슨팔자로 맘을내나
보릿대를 털어내라
보릿대를 털었으면
붓대질을 하여보세
어허야 보리로다
어허야 보리로다

창 : 임병원(남 64세 농업) 이동면 묘봉리

3) 喪 吊 歌

人間이 이 世上을 하직하고 저승길을 가는 恨스러움을 表現하는 喪吊歌는 大개 行興歌와 회방아타령(달고질노래)등으로 區分된다. 이 喪吊歌는 죽은 사람을 저승길로 보내는 마지막 周圍사람들의 共同儀式으로써 그 旋律이나 歌辭가 매우 애처로와 故人을 보내는 家族들의 슬픔을 한층 더 悲感에 젖게하곤 한다. 이 喪吊歌의 內容은 마지막 가는 저승길의 恨스러움과 죽어서 저승으로 가야만하는 人間의 하잘것 없는 삶, 저승길의 두려움과 비통함, 人生살이의 못다이룬 연민등을 노래하는 行興歌와 북을치며 선소리를 메이는 달고질(회단이)로 나누어지는데 회단이(달고질)의 노래는 故人의 영원한 安息處인 幽宅이 明堂이길 바라고 그 明堂德에 子孫들에게 陰德을 입혀 富貴榮華를 누리게 하기를 바라는 內容으로 되어있다.

에헤어야 달고
 국지중은 태국이요
 인지중은 순덕이라
 한 명당이 떨어져서
 이 명당이 생겼으니
 뒷쪽산을 바라보니
 관우장비가 춤을추고
 앞에 안산 바라보니
 석가여래 잠을자고

창 : 최용달(남 65세 농업) 포곡면 둔전 2리

四. 現 時 代 的 民 謠 集 發 刊 에 따 른 問 題 點

요즈음에 들어 각 고장마다 地域內의 傳統藝術을 發展·育成시키기 위해 많은 努力을 하고 있음은 익히 아는바다.

또한 傳統 民俗文化의 發展의 一部로서 各 故場에 散在해 있는 地域內의 俗謠나 告祀唱, 內房歌辭등을 整理하여 인쇄물로 출판한다는 것은 매우 뜻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民謠集이라고 하여 發刊된 冊字가 거의가 民謠集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民謠의 歌辭集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民謠란 文字대로 民間속에서 불리는 노래를 말하는 것으로써 樂譜, 長短 등이 表記되어 있어야만 民謠集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 졌을때라야 보는이가 그 노래를 대체적인 骨格이나마 익혀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民謠集이라 해서 發刊된 거의 全部가 그 辭說만을 收錄한 것으로 그 歌辭는 알 수 있어도 노래자체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觀察할때 昨今에 各 地域內에서 發刊되는 民謠集은 다음의 問題點을 지닌다.

첫째 : 民謠 自體의 樂譜가 收錄되어 있지 않아 民謠集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 韓國의 傳統音樂은 그 表記法이 洋樂의 평균률과는 달라 모든 음이 미문음을 내포한 순정율이며 홀림소리, 떠는소리, 굴림소리, 치는소리등 特異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악보에 이러한 점을 說明하고 表記해야 하는데 단순한 五線譜 위에 旋律만 적고 있어 자칫 洋樂의인 發聲으로 나타나기가 쉽다는 점이다.

셋째 : 俗謠의 全體가 技能人(歌唱者)에게서 體系의인 方法으로 傳授 받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듣고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辭說의 앞, 뒤의 文脈이 통

하지 않고 말도 틀리는 것이 많아 歌辭 自體도 俗謠로서의 價値를 지니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작은 問題點으로 나타난다.

- ① 歌唱者의 理解力과 發表力, 暗記力의 부족
- ② 採錄者의 俗謠의 理解力 부족
- ③ 出版過程에서의 인쇄의 잘못

上記에 적은 것은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 스스로가 터득하는 俗謠의 歌辭를 歌唱者가 그 內容을 알지 못하고 비슷한 辭說을 부르거나 아니면 正確하지 못한 歌辭의 口誦으로 빚어지는 경우에 나타나며 두번째는 우리나라의 俗謠의 大部分이 舞歌에서 따온 것이므로 地方의 民謠를 채록하거나 研究할때는 舞歌의 辭說을 먼저 익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舞歌를 모르는 채 民謠(俗謠)를 채록하기 때문에 앞, 뒤의 文脈이 틀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채록자의 부정확한 판단이며, 셋째는 冊字로 發刊함에 있어서 인쇄과정의 오자를 바로잡지 않아서 오는 실수이다. 이상의 점은 가장 基本的인 問題點이며 이 외에도 상당한 問題點이 있다.

넷째 : 사투리나 發音의 不正確에서 오는 점은 編著者가 註를 달아 해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면에 관심을 쏟지않아 口卑文學的 價値는 있어도 民謠集으로서의 가치에는 問題가 있다는 점이다.

前記한 問題點을 보완하지 않은 狀態에서는 그 發刊되는 冊字가 民謠集이라 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考察할때 地方에서의 民謠集의 發刊에는 우선 專門家의 不在라는 점이다. 地方에 散在해 있는 俗謠를 채보하기에는 能力이 있는 전문가가 채보를 하고 舞歌등을 研究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辭說만을 收錄한다는 것은 民謠의 歌辭集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五 結 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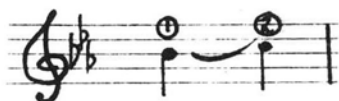
現在에 나타나는 많은 民謠集의 發刊은 地方의 여건이 허락지 않아 專門家를 地域에 招請해다가 錄音, 採譜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녹음한 狀態로 의뢰하여 正確한 채보가 이루어진 후에 樂譜와 함께 收錄해야만 제대로의 民謠集의 價値가 있으며 가끔적이면 地方의 俗謠라 하여도 文學的인 價値를 갖는 것이 아니고 傳統音樂的인 民謠集이라 할때는 제대로의 旋律과 歌辭를 알려주고 틀린것은 바로 잡아서 펴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民謠集의 價値는 부르며 사라지는 空間藝術인 無形의 노래를 保存하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上記의 條

件을 必히 갖추어야 하며 그렇게 제대로의 條件을 갖춘 후라야 옳바른 民謠集의 價値를 갖는다고 하겠다.

◎ 後 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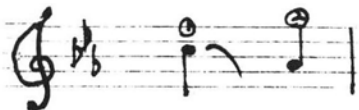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傳統音樂의 音皆는 宮中音樂인 正樂과 民俗樂으로 區分하는데 正樂은 대개 E_b(내림마)장조로 많이 表記하며 民衆樂의 民謠는 G(사)장조로 散調는 D(라)로 表記한다. 이러한 表記法은 흔히 樂譜의 表記者와 樂譜를 보고 演奏나 歌唱을 하는 사람들과의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民俗樂의 경우 地方의 俗謠는 歌唱者마다 그 音의 高低가 달라 必要에 의한 약속만으로는 正確한 채보가 힘들고 表記가 힘들어 대개는 E_b이나 G로 表記하는데 다만 여기서 註意할 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즉 이 조표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이 조표는 편의에 의해 붙여지는 것이고 音의 基本的인 設定에 必要한 것으로써 絕對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며, 하기의 樂譜에 表記되어 있는 부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들어 밀어올리는소리, 흘림소리 혼드는소리, 굴리는소리, 치는소리등을 말하며 우리나라 民俗樂의 멋은 이러한 것에 있다고 하겠다.

〈밀어올리는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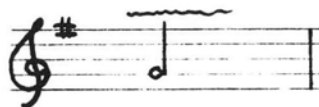
①의 음에서 ②의 음까지 음을 자연스럽게 밀어 올린다. 즉 음을 갑자기 한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①의 음을 ②의 음까지 미는 형태이다.

〈흘림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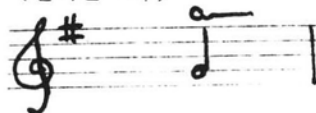
밀어올리는 소리와는 반대로 ①의 음을 자연스럽게 흘려서 ②의 음까지 끌어내리는 소리이다.

〈혼드는 소리〉



요성으로 음을 잘게 떠는 소리이다.

〈굴리는소리〉



처음에 음을 한번 크게 굴려서 낸 후에 잘게 떠는 소리이다.

〈 치는소리 〉



음을 강하게 쿡쿡치는 액센트로서 하행의 경우에만 나타나거나 한음을 특히 강하게 할 경우에 나타난다.

※ 以上과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며 좀 더 專門的인 作業을 必要로 할때에는 더 많은 研究作業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筆者註〉

龍丘文化에 글을 기다립니다

本 文化院에서 季刊誌로 發行되는 「龍丘文化」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 要領에 의거 여러분의 주옥같은 글을 수시 모집하고 있으니 投稿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民俗, 文化祭等 발굴기
2. 愛鄉心 고취에 관한 산문
3. 鄉土文化 暢達을 위한 논문
4. 각 기관 및 學校, 一般社會團體等에 동정消息等
5. 他鄉生活手記, 내가 보는 龍仁像, 龍仁 發展을 爲한 提言
6. 文藝, 詩, 時調, 수필, 콩트 龍仁에 關한 사진等 資料
7. 可綴的이면 200字 原稿紙를 使用하되 枚數는 제한없음

보내실 곳 :

용인군 용인읍 김량장리 133-61

용인문화원 용구문화 편집실 (전화) 2-2033

용인을 지나며

윤홍찬 지음
홍순석 옮김

황폐한 들녘 십여리에
인적 조차 끊기었고,
봄 제비의 둥지를 못견딘
들나무들 쓰러져 있는데,
저물녘에 피곤한 말 이끌고
홀로 객사에 머무노라니,
주인 늙은이 울부짖으며
병자년의 피해 털어놓누나.

龍仁途中

尹弘燦

荒郊十里斷人烟 春燕多巢野樹顛
倦馬夕投孤店宿 主翁泣說丙子年

「六家雜詠」

- 윤홍찬(尹弘燦)은 光海·仁祖연간에 활동하였던 閩巷詩人 중 한 사람으로 「六家雜詠」과 같은 閩巷人詩文集에 적지 않은 작품을 남겼다. 이 작품은 仁祖 14年(1636) 丙子胡亂을 겪은 직후의 작품이다.

심곡서원 강당기(深谷書院 講堂記)

宋時烈 지음
洪順錫 옮김

인종(仁宗)·명종(明宗) 두 임금 이후로 선생의 도(道)는 크게 세상에 밝았다. 비록 아녀자나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 이름을 외우고 그 덕(德)을 일컫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후세에 제 아무리 말 잘하는 선비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에 다시 군더더기 말을 덧붙일 수 없을 것이다.

오직 태학생(太學生) 강유선(康惟善)의 소(疏)¹⁾야말로 원통을 풀고 도(道)를 밝히는 제1의 문자(文字)라 하겠으나, 선생의 연원(淵源)을 논한 것만은 의심스러운 점을 남기고 있다.

그가, 포은(圃隱)을 동방 이학(理學)의 조종이라고 한 것으로 말하면 대개 포은은 비로소 정주(程朱)의 설을 가지고 동방 선비들을 깨우치되, 그 횡수설화(橫堅說話)한 것이 어김없이 바로 부합되었으니, 그 이학의 조종이라 말한 것은 또한 알맞은 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가, 사예(司藝) 김숙자(金叔滋)는 포은의 학문을 야은(冶隱)²⁾에게서 받아 그의 아들 점필재(佔畢齋)³⁾에게 전수(傳受), 그래서 김문경공(金文敬公)⁴⁾에게 이르고, 드디어 선생에게 미쳤다고 한 것으로 말하면, 그윽히 생각컨대, 변경할 수 없는 정론이 되지 못할 듯 싶다. 선생에 있어서의 주고 받은 계통에 대해서는 후학(後學)으로서 감히 논의할 바 아니다. 그러나 여러 노선생(老先生)⁵⁾들이, 선생의 언론(言論)·풍지(風旨)에 대해 논급한 것으로 본다면, 그윽히 생각컨대, 중간 두어 군자(君子)⁶⁾는 특히 그 단서를 계발(啓發)했을 뿐이고, 오직 문경공에게 수

1 康惟善의 疏 : 仁宗 1년(1545)에 朴謹·康惟善 등이 정암 선생의 억울함을 씻어달라고 청원하던 즉 伸冤疏를 말함.

2 冶隱 : 吉再(1353~1419)의 호

3 佔畢齋 : 金宗直(1431~1492)의 호

4 文敬公 : 金宏弼(1454~1504)의 시호

5 老先生 : 沙溪 金長生 등을 말함.

6 君子 : 吉再 金淑滋·金宗直 등을 가리킨다.

학한 것만은 틀림없는 일이다.

대개 선생은 특립(特立)한 자질로 문장의 기운을 지녔으며, 스승의 전수(傳授)를 겪지 않고 홀로 도(道)의 묘리를 터득하였다. 염낙(濂洛)·관민(關閩)의 학문⁷⁾으로 말미암아 위로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의 뜻을 구하였으니, 규모(規模)가正大(正大)하고 공부(工夫)가 엄밀(嚴密)하였으며, 순수한 성현(聖賢)의 도(道)요, 순전한 제왕(帝王)의 법이었던 것이다.

비록 능히 행하는 것은 일시적이었지만, 후세에 전하는 것은 더욱 오래수록 없어지지 않으리라. 아! 이것은 어찌 인력(人力)의 관여할 바겠는가? 하늘이 실은 그러도록 한 것이다.

조중에서 이미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였으니, 그 은덕(恩德)을 값음이 극진하였고, 지방 유생(儒生)들이 또 묘소의 곁에다가 사당을 세워 신주(神主)를 모셨지만, 강당(講堂)은 미쳐 지을 겨를이 없었더니, 그 뒤에 유생과 관리들이 또 의견을 모으고 물자를 마련, 정유년(丁酉年) 가을에 착공하여 무술년(戊戌年) 봄에 준공하였으니, 글 읽고 휴식할 처소가 그래서 대략 갖추진 것이다.

선생의 5세손(五世孫), 지금 삼산부사(三山府使)로 있는 위수(渭叟) 군이 제생(諸生)들을 위해 나에게 기문(記文)을 요구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선생이, 우리 동방에 태어난 것은 마치 염계(濂溪)가 송(宋)나라에 태어난 것과 같다.⁸⁾ 어찌 반드시 구슬을 꿰는 것처럼 차서있게 주고 받은 다음이라야 도학(道學)을 전하는 것이겠는가?

무릇 후인으로서 이 강당에 오르는 자가 한갓 선생의 용색(容色)과 성음(聲音)만을 상상할 게 아니라, 모름지기 선생의 배운 바는, 가까이는 정주(程朱)의 정맥(正脈)을 으뜸으로 하고, 위로는 주사(洙泗)의 묘지(妙旨)를 구함에 불과했다는 것을 강구(講求)할 뿐이다. 말만을 앞세우고 듣는 것만을 숭상하므로서 명예를 위하고 실속이 없는 것은 진실로 선생의 깊이 부끄러워한 바인데, 더구나 헛된 외면 치레만을 하는 문장의 익힘에랴?

일찌기 듣건대, 서원(書院)을 설립하는 일은 송(宋)나라 때 보다 성한 적이 없고 서원선비들을 권계(勸戒)하는 설법은 장남현(張南軒)⁹⁾이 지은 악록기(鐵籠記)보다 갖추진 게 없다고 한다. 거기에, 작은 일로 말하면, 음식과 기거(起

7) 濂洛關閩之學 : 濂溪의 周敦頤 · 洛陽의 程頤 그 아우 程頤, 關中の 張載, 閩中の 朱熹가 제창한 儒教, 곧 性理學을 말한다.

8) 濂溪……것과 같다: 염계 주 돈이도 뚜렷한 도학의 주고 받은 연원이 없었음을 말한다.

居)의 절차, 가까운 일로 말하면, 아버이를 섬김과 형을 순종하는 실상, 은미한 일로 말하면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을 다룬 것들이 미비한 게 없다고 할 만 한데, 그래도 주자(朱子)는 오히려 하학(下學)의 공부에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다고 여기고, 반드시 발(發)하기 전에 기르고 발하려 할 즈음에 살피서, 선(善)을 확충하고 악(惡)은 제거하게 하였으니, 대저 이 두 분의 실은 곧 선생께서 복습하여 수용(受用)한 것이었다. 그러니, 선생의 학문을 구하려 하는 이라면 이것을 놔두고서는 다른 말 할게 없다.

그리고 선생의 끼친 일로서 모든 책에는 빠진 것이 있다. 그것은 선생께서 문경공을 회천(熙川)에서 따르던, 즉 나이 겨우 17세 때의 일인데, 이러하다.

문경공이 한 가지 맛진 음식을 얻어, 장차 그 어머니에게 보내 드리려 했는데, 간수하는 자가 삼가지 않아 고양이 먹어버렸다. 문경공은 노발대발하였다. 선생은 닥아가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께서 봉양하시는 정성이야말로 참으로 지극하오나, 군자(君子)는 사기(辭氣)를 잠깐도 방과(放過)할 수 없는 걸요”

문경공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무릎 앞으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네 스승이 아니라, 네가 실은 나의 스승이구나”

그리고는 종일 큰 소리로 칭찬하였다. 선생의 아름다운 자질은 참으로 고금에 뛰어났고, 문경의 선(善)에 복종하는 역량 역시 선생에게서 발생하였으리라. 회천 지방의 노인들은 지금도 전하여 미담으로 삼는다. 이 일은 이 강당에 게시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아울러 기록한다.

송정(崇禎) 계축년(癸丑年; 현종 14년, 1673) 10월 은진(恩津) 송시열(宋時烈) 기록한다.

深谷書院講堂記

宋時烈

粵自 仁明兩朝以來 先生之道 大明於世 雖婦人孺子 莫不誦其名 稱其德 後雖有能言之士, 更無容贅其辭矣, 惟太學生康惟善之疏, 是伸寃明道第一文字, 而論先生源派者, 未免有可疑, 其以圃隱爲東方理學之宗者, 蓋圃隱始以程朱之說, 啓牖東土, 其橫堅說話 直契無違 則其謂之理學之宗者, 不亦宜乎, 至其以金司藝叔滋, 爲

傳圍隱之學於治隱，以授其子畢齋，以至於金文敬公，而遂及於先生，則竊恐不得爲不易之定論也，先生授受之統，非後學所敢議，然竊以諸老先生之尙論及，以先生言論風旨，觀之則竊謂中間數君子特以發其端而已，惟受學於文敬公者，不可誣也，蓋先生負特立之資，膺奎明之會，不繇師傳，獨契道妙，由濂洛關閩之學，上求乎大學語孟中庸之旨，規模正大，工夫嚴密，粹然聖賢之道，而純乎帝王之法矣，雖能行之，一時，而傳之於後者，可以愈久，而無弊矣，嗚呼，此豈人力之所與哉，天實啓之也，朝廷既從祀文廟，則其崇報也，極矣，而京外章甫，又即丘墓之傍，建祠安靈，而講堂則未遑也，其後章甫縉紳，又合謀鳩材，經始於丁酉之秋，訖功於戊戌之春，藏修遊息之所，於是略備矣，而先生五世孫，今三山使君渭叟，爲諸生求記於余，余以爲先生之生於我東者，實如濂溪之於宋朝也，豈必授受次第，如貫珠然後，乃爲道學之傳哉，凡後人之登斯堂者，不徒想像乎先先容色聲音，而必須講求乎先生之所學，不過近宗乎程朱之正脈，而上求乎洙泗之妙旨而已，夫出口入耳，爲名無實者，固先生之所深耻也，況於浮靡藻繪之習哉，蓋嘗聞，書院之設，莫盛於宋朝，其勸戒院士之說，莫備於張南軒嶽麓之記矣，細而飲食起居之節，近而事親從兄之實，微而天理人欲之際，則可謂無餘蘊矣，而晦翁猶以爲未究乎，下學之功，而必使養之於未發之前，察之於將發之際，善則擴充之，惡則克去之，夫二子之說，即先生之所服習，而受用者也，然則欲求先生之學者，捨是宜無他說也，抑先生遺事，有逸於諸書者，先生從文敬於熙川之時，年僅十七矣，文敬得一美味，將奉送母夫人，守者不謹，爲鳥圓所攫，文敬聲氣頗厲，先生進曰，先生奉養之誠，則誠至矣，而君子辭氣，不可須臾放過也，文敬不覺膝前執手曰，我非汝師，而汝實我師也，終日嘖嘖，先生資質之美，固度越今古，而文敬服善之量，亦有所相發於先生矣，熙川之遺老，至今傳爲美談，此宜揭於斯堂，故並著之，時崇禎癸丑十月 日 恩津宋時烈記

3부 ; 국민 학교 (5, 6 학년)

4부 ; 중학교

※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문화원으로 연락바랍니다.

TEL : 2-2033



※ 인사동정 ※

서영호 龍仁警察署長

충직성실한 자세로서 치안질서의 확립과 친절한 위민봉사와 극기로 경찰의 명예를 지키며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겠다는 복무지침을 밝힌 徐瑛鎬 警察署長은 忠南公州에서 出生하여 忠南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찰에 투신, 釜山市警察局 交通課長, 治安本部 第2部 保安課, 治安本部 방법과장 등 주요직을 거쳐 1987. 1. 15일자에 龍仁警察署長으로 부임하였다. 家族은 老父母任과 부인 김광한여사와의 사이에 2男1女를 두고 취미는 讀書.

泰成中高等學校 이도선 校長

태성중고등학교 제 5대 校長으로 37년간 教育界에 몸담고 있던 이경환 校長은 1986. 12. 31 日字에 공로 退任하였다.

후임으로 제 6대교장에 1987년 1월 5일字로 이도선 校長이 부임하였다.

이도선 校長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연수원장, 수원간호전문대학 전임강사등 다년간 教育기관에서 활약하던 분이다. 부인이 상용여사와의 사이에 2男을 두고 취미는 독서.

龍仁郡內 銀行支店長 移動狀況

- ※ 國民銀行龍仁支店：1987. 1. 23 日字 鄭昌基支店長후임으로 鄭光金支店長 就任.
- ※ 商業銀行龍仁支店：1986. 11. 30 日字 한영수支店長후임으로 金永學支店長 就任.
- ※ 第一銀行龍仁支店：1987. 2. 26 日字 심현택支店長후임으로 柳宗男支店長 就任.

'87 년도 용인문화원 사업계획

행사에정 기 간	회 수	산 업 내 용	대 상
87. 1. 28	7 호	내고장 민요(용인향토문화자료)	1,200 부 발간
3월 - 9월	년 중	고유민속예술전승(취타대, 재돈음)	학생, 일반
4월	제 2 회	미스 경기 선발	일 반
1 - 12월	년 중	어머니합창단 지원육성	일 반
3.6.9.12	분기별	용구 문화지 발간	4,000 부 발간
6월	제 6 회	미술 작품 공모전	유치부, 초, 중, 고
9월	제 2 회	용구 문화제 행사	일 반
9월	제 4 회	피아노 경연 대회	초, 중등부
9월	제 4 회	영어 회화 대회	중, 고등부
9월	수 시	청소년 문화강좌	중, 고등부
9월	제 9 회	서 예 대 회	초, 중, 고, 일반부
10월	제12회	주부백일장	일반주부
10월	제 2 회	청소년 백일장	초, 중등부
10월	제 3 회	효 도 관 광	노 인
10월	제 2 회	어머니합창단경연대회	학교, 일반
11월		종 합 시 상 식	부문별시상대상
1 - 12월	년 중	각종 전시회	문예부문별

도암 이재 초상

도암 이재(李緯)선생은 용인 이동면 천리에서 출생한 조선 숙종, 경종, 영조때의 학자이며 대사헌, 이조참판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그의 초상은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한국유물 5천년 전)의 멤버에 들어 해외 나들이를 할만큼의 佳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초상은 지금까지 표지에 실었던 단령의 공복상이나 공신도상에서와는 달리 유복에 복건을 썼다는 차이점 말고도 전신의 포치와 음영처리에 있어서도 많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약간 우향된 2분면 상이라던가 윤염법(暈染法)의 안면구사와 치밀한 육리문의 사출은 여타 초상에서 흔히 나타나지 않는 필법이라 하겠다. 직령의 선, 술띠, 옷소매의 끝동에 나타나는 검은선은 포외의 흰색을 바탕으로 선명한 윤곽미를 들어내고 있으며 안정된 전신 포치와 안면의 윤곽담묵으로 처리된 옷무늬의 선등에서 뛰어난 화격이 나타나고 있다.

이 초상은 그의 손자 이채像을 기초로 하여 그려졌다고 전하며 작자는 蔡 龍臣이라고 전한다.

(李 仁寧)

편집후기

- ◎ 郷土의 얼이 담긴 龍丘文化誌가 創刊된지 햇수로 4年이 경과되어 이제 誌齡 10號를 發刊하기에 이르렀다.
- ◎ 本誌는 先代의 숨결이 담긴 내고장 特有傳統文化를 發掘하고 한편 住民속에 內在되어 있는 참모습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郡民과 더불어 커가는 「龍丘文化」誌가 되도록 努力할 것입니다.
- ◎ 特히 이번 號에는 용인군내 각 마을의 역사와 유래를 소개할 「마을誌」를 연재하기로 하고 그 첫회를 실었으며, “龍仁의 民謠”(俗謠를 中心으로)를 내고장民謠의 附錄으로 채보하여 소개하였다.
- ◎ 우리 祖上의 얼이 숨쉬고 또한 나와 내 후손이 살아가야할 내고장 發展을 爲해서 아낌없이 投稿하여 주신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고향을 가꾸고 지키는 마음에서 本誌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應 峻 -

용 구 문 화 제 10 호

1987년 3월 25일 인쇄

1987년 3월 31일 발행

발행처 : 용인문화원

발행인 : 김 정 근

편집인 : 이 응 준

인쇄처 : 흥익문화인쇄사 전 화 : 274-6155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일부를 지원받아 발간되었음.

비 매 품

내고장 文化의 殿堂



社團
法人

龍仁文化院 任職員 및 委員名單

顧問	李一寧	監事	洪在九
院長	金正根	監事	金鍾學
副院長	姜明允	事務局長	李應晳
理事	金鍾一	總務	鄭東根
理事	宋在權	事務職員	李惠遠
理事	朴鏞益		
理事	朴宰成		
理事	金命均		
理事	韓鳳基		
理事	朴遇赫		
理事	趙成澤		

諮問委員

申千湜 明知大學校教授
 金渭顯 明知大學校教授
 李石祐 慶熙大學校教授
 金載悅 湖巖美術館研究官

鄉土文化研究委員

李仁寧 京畿道廳
 洪順錫 檀國大學校東洋學研究所
 鄭亮和 龍仁商高 教師
 金鍾斗 龍仁女中 教師

龍仁文化院

龍仁邑金良場里 133 - 61
 Tel. 2-2033

